NEWS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전남도, 활성처리제 개발… '김 양식' 새 시대 연다

병해 방제 효과·경제성 월등…기존 무기산 대체 기대

2년여 현장서 시험 국내외 특허 출원…올해 본격 공급

전남도가 기존 김 활성처리제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효능을 갖춘 김 활성처리제를 자체 개발해 새로운 김 양식·생산 시대를 열게 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무기산(염산)과 대등하고 PH 농도도 무기산 대비 독성이 낮은 신규 김 활성처리제를 전남도가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새로 개발된 김 활성처리제는 지난 3년간의 노력 끝에 기존 김 활성처리제보다 파래 제거, 요각류 제거, 균 억제 등 병해충 방제와 중금속(카드뮴) 제거, 작업시간 단축 등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돼 김 양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은 어업인들의 기존 활성처리제의 사용 기피, 불법 무기산 사용으로 다수 어업인이 단속에 적발돼 전과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남도와 수협중앙회, 지역수협(고흥·해남·진도·신안)이 힘을 모아 서울대학교(책임연구원 하남출 교수)에 의뢰해 추진한 연구용역이다.

신규 김 활성처리제의 양식 효능시험 결과 파래 100% 구제, 요각류 140% 제거, 균 억제력과 병해충 방제가 뛰어나고 중금속(카드뮴) 제거 등 약제 효능이 매우 좋으며, 작업시간 단축,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신규 김 활성처리제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2025년산 김 생산 시기 대규모 현장 시험(4개 시·군, 1100ha)으로 130명이 직접 사용하고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다.

김 생산 어업인들은 지난 2년간 양식 현장에서 신규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 실제 파래·요각류 제거, 병해충 방제 등에서 기존 무기산 사용량의 절반 정도 사용으로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만족감을 내보였고, 올해 김 양식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량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서울대와 함께 무기산을 대체할 효과가 좋고 안전한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해 2년간 현장 시험을 거쳐 이번에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올해 김 양식 시기에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김 산업 발전을 위해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면 '전남 재생에너지'서 계속

전문가들은 민간의 기술력과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맞물릴 경우,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전남도의 실질적 추진력이 맞물리며,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민선7기에 블루이코노에서 시작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이제 실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수도이자,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면 '대선 이색 캠페인'서 계속

더민주광주혁신회의 투표 참여 시민운동본부는 '말보다 강한 목소리, 투표로 들려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며, 챌린지 운동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출퇴근 인사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도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벌이며 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 5개 구청장과 교육감은 '역대 최고 투표율인 92.5%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또 서구는 대한민국 음식 명장들과 손잡고 음식에 투표 참여 문구가 적힌 투표깃발이나 투표빵을 출시하는가 하면, 북구는 문인 청장이 '광주 자치구 중 투표율 1위를 하면 물놀이장 개장 시 물풍선을 맞겠다'는 등의 이색 공약도 제시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 민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민주당 소속 선거운동원들이 골목골목 유권자들을 찾아가 투표율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에 나선 지방의원들은 이번 대선이 그 어느 선거보다 '극한 선거운동'으로,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펼치는 기회인 동시에 투표를 통해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 'V:Launch 광주 스페셜 세션'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린 산업은행 서남권투자금융센터 'V:Launch 광주 스페셜 세션'에 참석해 축사를 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여름 풍수해 자연재난 선제대응

내달 13일까지 '집중 안전 점검'…재난 위험요인 해소

광주시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을 포함한 시 민관합동점검반은 전날 광산구 하남대교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에는 광주시 시민안전실·종합건설본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3명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교량 구조물 균열 여부, 배수체계 이상 유무, 교각 주변 세굴 발생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중장기적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연차별 정비계획을 세워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다음달 13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민관이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하남대교와 같은 주요 기반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선제적인 점검과 꼼꼼한 후속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없애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해남 솔라시도,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 선정

AI 데이터센터 유치…산업부, 이달중 특구 최종 지정

해남 솔라시도 등 전국 7곳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4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열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유형별론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제주, 부산, 경기, 경북이 수요유치형으로 울산, 충남, 전남이 각각 선정됐다.

전남은 대표적인 계통 포화지역으로 그동안 송전 제약과 태양광 출력 제어가 빈번했는데, 해남 솔라시도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구역전기사업이 최초로 도입되고 RE100 데이터센터 단지가 처음 시도될 예정이다.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7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6월)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계통도 더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업계에 지역 발전사를 통한 경쟁력있는 전기요금 혜택, 재생에너지와 암모니아 기반 발전소 등 무탄소 전력을 이용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산업부는 보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박지원, 금타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수습과 관련해 21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제7차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광주지역 경제 65년을 지켜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번 화재로 거의 전소했다"며 "현장에 가보니 소방관들이 8곳의 위험물질이 있는 곳을 사수해 피해를 줄였다. 소방관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청장이 200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 고용불안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며 "특히 인근 7만여 명의 시민들 건강도 우려된다. 즉각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민 건강 검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도심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서 잘 컨트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